

남원-더본코리아, 지역경제 함께 살린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체결된 남원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남원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협력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컨설팅 및 교육지원 △정부 지원사업의 공동 참여로 지역 산업 발전 협력 △광한루원 주변상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축산물 등 먹거리와 관광을 연계한 상품개발, 마케팅 및 홍보 먹거리 및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설립 등으로, 더본코리아는 남원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메뉴 개발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 상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축제와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으로 관광남원의 옛 명성을 되찾고, 정부 지원 사업에도 공동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표 상권인 ‘경의상가’를 매력적이고 핫한 핵심 점포로 육성하고, 인접 골목을 특색있는 상권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낮에서 밤까지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마련에 더본코리아가 참여하게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저출산과 고령

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더본코리아와의 협약으로 남원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되었다”면서 백종원 대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백종원 대표는 “스토리, 음식 등 너무 아까운 자원들이 남원에도 많은 것 같다. 이번 협력이 ‘관광 한국’의 기틀을 만드는 특별한 선례가 되길 바라며 그 역할을 더본에서 충실히 참여하겠다”면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원시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남원시와 더본은 5월 제94회 춘향제에서 손을 잡고 △막걸리 축제 △전통음식 테마의 ‘춘향 난장’을 직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공직 사회 내의 갑질 문제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공직사회 갑질 문제, 최영일 순창군수가 해결

6급 공무원 대상 상호 존중문화 조성교육 실시

최영일 순창군수가 공직 사회 내의 갑질 문제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가 강사로 나서 6급 팀장급 공직자 204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해 청렴도평가에서 부진했던 청렴 노력도 개선을 위해 최 군수가 직접 특강을 자처해 마련된 것으로, 갑질 사례와 갑질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공직자들이 이를 실질적인 직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최 군수는 “오늘이 자리는 단순히 갑질 근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 순창군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존중

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함은 물론 실천에 옮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교육 내용은 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에 초점을 맞췄으며, 구체적으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세밀하게 다루며 실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최 군수는 공직 내부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갑질 사례를 동영상 활용해 사례로 제시하며 갑질 근절에 동참을 독려했으며, 갑질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신안군 선도 수선화 섬 벤치마킹

심 민 군수, 옥정호 등 활용 세계적 관광 명소 조성 노력

임실군이 대표 생태관광지인 옥정호 산림 및 수변 자원을 활용한 경관 조성사업과 임실 관광자원들의 활용을 위해 경관조성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심 민 군수는 지난 2일 경관 조성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전남 신안군 선도 수선화섬의 섬을 방문했다. 수선화섬 조성된 선도 일원을 둘러보며 임실군 관광자원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 선도 수선화섬의 섬은 1986년 귀촌하신 현복순 할머니의 꽃에 대한 사랑을 시작으로 2020년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선화섬으로 도약하고 있다. 13만4,000㎡의 규모에 수선화 17종 208만구가 식재되어 있으며 수선화가 지고 나면 금영화, 황화코스모스 등이 봄을 지나 가을까지 노란색 꽃송이들



심 민 군수는 지난 2일 경관 조성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전남 신안군 선도 수선화섬의 섬을 방문했다.

의 장관을 이룬다. 신안군의 협조를 받아 수선화 섬의 조성 과정, 식재된 수선화의 종류, 특성, 식재 방법 및 유지관리 등의 설명을 듣고 수선화 식재 조성지와 선도 주민들의 향토 음식 판매장 등의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울러 임실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옥정호 권역 친환경 관광개발과 임실천 경관조성, 봉어섬 생태공원 조성 등의 관련 사업에 적용해 임실군을 세계적 볼거리가 가득한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비 1차 컨설팅 추진

순창군이 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오는 5월에 실시하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앞두고 1차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날 1차 컨설팅에는 훈련에 참여할 11개 기관·사회단체 20여명이 참석해 지진으로 인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

재 발생’을 가상으로 한 대응훈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훈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번 컨설팅에서는 우석대학교 김유성 교수와 보령시 안전총괄과 조성규 주무관이 지문단으로 참여했다. 군은 이번 1차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보완 사항을 개선하고, 전문가 2차 컨설팅 및 사전 훈련 연습을 거쳐 5월 30일에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빈집정비사업 주민 부담 해소

건축사 협약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 전액 감면

순창군이 지난 3일 행복누리센터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건축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해체계획서를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나 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주로 소규모 건축물로 구성된 순창군의 빈집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순창군 내에서 빈집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128명이 해체계획서 검토비용 전액을 면제 받게 된다. 검토비용은 건물당 약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6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총 7,600만원 상당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건축사는 관내에 위치한 강천건축사사무소, 담쟁이 건축사사무소, 순창건축사사무소, 한건축사사무소, 감해건축사사무소 등 5곳이다. 최영일 군수는 “좋은 취지로 함께 해준 관내 건축사들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비용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 실현에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남원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 4월 12일까지 환경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DPF 부착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만 해당되며, 자부담 비용은 장치 가격의 약 10%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되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교체 비용 전액 지원되며 Tier-1 이하의 2006년 75kw 이하 2005년 75~130kw 2004년 이전 제작된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로더, 톨라)가 대상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임실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15만7,204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의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임실군 담당 감정평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함으로써 지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군민의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오는 12월 까지 우선 상담으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을 통해 군민과 적극 소통하는 토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 때문으로 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유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